

##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

-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에 대한 평가 / 20
- 한국의 입장과 전략 / 26
- 일본의 입장과 전략 / 33
- 중국의 입장과 전략 / 42



#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에 대한 평가

이창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장

냉전시대의 동북아지역내 경제교류는 이념 및 정치논리에 종속되어 동·서 양진영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 때문에 동북아지역내 경제교류는 타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탈냉전 분위기가 성숙되고 또한 경제지역주의 추세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 중국 및 국내에서 동북아지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거론된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근거하여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그

룹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북아지역의 경제상황 및 지역내 경제협력 현황과 가능성 검토, 둘째,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가능성 모색,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시각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왔다.

### ① 동북아지역내 경제협력 가능성 검토

국내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초기연구는 중국의 동북3성(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인접지역이면서도 오랫동안 교류 및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중국 및 소련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경제상황 파악에서 출발한 연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이들 지역간 경제협력에 대한 가능성 검토로 이어졌다.

또한 점차 양자간 경제협력뿐 아니라 지역내 다자간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지역내 교역 및 투자현황이 분석

되었고, 교통, 통신 및 금융분야 등에서의 협력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북아지역내 다자간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역내국가간 지리적 인접성,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 및 지역경제의 역동성 등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역내 경제협력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역내 경제교류의 현 수준은 매우 낮다는 데 모든 연구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내 다자간 협력의 독특한 형태로 UNDP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 ②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

일부에서는 동북아지역내 양자간 및 다자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지역내 경제협력체 형성을 염두에 둔 견해들이 발표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경제지역주의 추세가 고조됨에 따라, 여타지역 경제블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에서도 일종의 경제협력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북아지역의 다

양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EC와 같은 경제공동체의 실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주장이 동북아지역에 상당히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체가 먼 장래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북아지역내 소지역이라 할 수 있는

“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북아지역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EC와 같은 경제공동체의 실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주장이 동북아지역에 상당히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체가 먼 장래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환동해(일본해) 경제권 및 환황해(황해 및 발해만) 경제권 형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동북아지역내 국가간 경제협력보다도 인근 지방간 경제교

류가 강조됨으로써 기존의 경제지역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경제협력이 모색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할 것이다.

## ③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시각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한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상대국의 시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시각을 연구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돕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 왔다.

이러한 각국의 시각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및 일본내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의 중앙 및 지방의 견해가 다르고 일본에서도 동경, 니이가타 및 후쿠오카의 시각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중앙차원에서의 시각과 지방차원에서의 견해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에 대한 논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에서 일부 학자들은 동북아 경제협력체, 동북아 경제협력권, 환동해 경제권 및 환황해 경제권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가 함축하는 의미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로 인해 동북아 경제협력도 일종의 일순간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협력을 일종의 경제통합으로 보는 학자들도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기존의 EU, NAFTA 혹은 AFTA와는 다를 것이라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는 이와 같은 국가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애물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세계적으로 냉전시대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다. 북한이 여전히 동북아지역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북아에는 일·러간 북방도서문제, 중·러간 국경문제 등 정치적 분쟁사안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중국, 러시아, 북한 및 몽골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 있던 국가들이 현재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경제에는 사회주의체제의 관행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시장경제체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정부관리나 기업경영자들이

“

동북아 경제협력은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체 형성이 아니고 동북아지역에서 역외국가도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차원뿐 아니라 지방간의 경제협력을 포함하며 지역개발 혹은 프로젝트별 공동사업 등 모든 형태의 양자간, 다자간 경제협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새로운 제도에 익숙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셋째, 경제규모나 경제발전 단계면에서 역내 국가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일부 국가간 문화적 친근성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요인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의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교류 수준은 낮은 편이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나 업계 차원에서 역외국에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경제협력체 구성에 소극적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 왔다. 그 중 가장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이다. 손병해 교수는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의 경제권의 개방구, 경제특구 및 자유경제무역지구와 시장경제권의 해안도시를 연결하는 국지적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개념

동북아 경제협력체 개념이 동북아지역 국가간 경제협력체 형성이라는 지역주의 및 경제통합 개념에서 출발한 데 반해, 필자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라는 보다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동북아 경제협력은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체 형성이 아니고, 동북아 지역에서 역외국가도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차원뿐 아니라 지방간의 경제협력을 포함하며 지역개발 혹은 프로젝트별 공동사업 등 모든 형태의 양자간, 다자간 경제협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가장 협의의 동북아에는 남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만이 포함되지만, 광의의 동북아에는 몽골, 중국 전체, 러시아의 동·서 시베리아, 홍콩, 대만이 기론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력을 논할 때, 때로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지역에 속해 있지 않는 미국도 동북아협력의 틀 속에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혼란은 동북아 경제협력이 배타적인 성격을 띤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통합을 목표로

“

첫째, 동북아지역내 소지역인 환동해 지방과 도시간 경제협력 및 환황해 지방과 도시간 경제협력, 둘째, 동북아지역내 비교적 낙후지역인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3성, 북한 및 몽골 등에서의 지역개발, 셋째, 두만강지역 개발사업과 같이 동북아지역내 일정 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 넷째,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 및 에너지개발, 환경문제 해결 등 동북아지역내 공동 관련사업의 추진 등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 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해석될 때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신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적으로는 남북한, 일본 및 몽골은 국가전체가

동북아에 속해 있는 반면, 중국은 동북지역과 상해 이북 연안지역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內蒙古, 河北省, 北京市, 天津市, 江蘇省, 上海

市), 러시아의 경우에는 극동지역(혹은 동·서 시베리아가 추가된 우랄산맥 동쪽지역)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둘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몽골을 동북아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볼 경우, 광의의 동북아에는 홍콩 및 대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을 장(場)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대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북아지역 내 소지역인 환동해 지방과 도시간 경제협력 및 환황해 지방과 도시간 경제협력, 둘째, 동북아지역내 비교적 낙후지역인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3성, 북한 및 몽골 등에서 지역개발, 셋째, 두만강지역 개발사업과 같이 동북아지역내 일정 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 넷째,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 및 에너지개발, 환경문제 해결 등 동북아지역내 공동 관련사업의 추진 등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동북아 경제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 ① 동북아 경제협력이 한국에서 갖는 의미 및 한국의 역할

세계화 및 지역주의 추세가 병존하는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동심원을 그릴 때, 그 중 동북아는 가장



“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북아 경제협력은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북한지역 개발에 필요한 다자간 재정지원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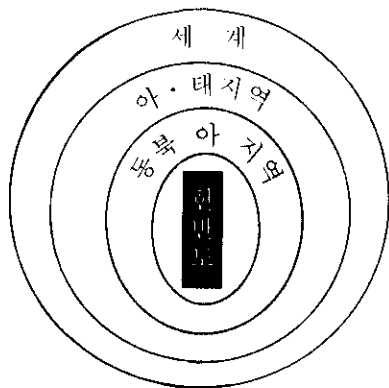
작은 원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경제협력의 장임을 알 수 있다. 동북아지역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시장 및 기술과 자원의 공급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선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인 및 교민(조선족, 고려인)에게 경제활동의 무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북아 경제협력은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북한지역 개발에 필요한 다자간 재정지

원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에 비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 세계속의 한국



## ②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하나의 제안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필요한 기구화 등을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기구'의 발족을 제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모임의 구성은 관련국의 정부, 업계 및 학계의 대표로 하며, 이 모임에는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지 않지만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정치·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한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

심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발전도나 경제 규모면에서도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역내 여타국 및 역외국으로부터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으며 패권주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는 한국이 역내 타

“ 일본이나 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역내 여타국 및 역외국으로부터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으며 패권주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는 한국이 역내 타국에 비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성격을 띤 동북아 경제협력의 이념에도 부합되며, 미국이 참여할 경우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역외국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의구심

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기구'가 정식 출범한 이후에는, 희망시 여타국들도 의무를 수행하는 조건하에서 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